

“추석 연휴는 제주에서”… 방문 행렬 본격

제주도의회 제454회 정례회 폐회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등 75건 심의

23~27일 관광객·귀성객 22만9000여명 찾을 듯
연휴 짧고 항공 좌석 줄어 지난해보다 4% 감소
제주공항은 특별대책기간 운영 손님맞이 분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관광객과 귀성객들의 제주 방문이 시작됐다. 올해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짧은 데다 항공 공급 좌석도 감소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모처럼의 명절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국내외 관광객과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내려는 귀성객들의 행렬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제주를 찾을 방문객은 22만9000명으로 예상된다. 날짜별로는

23일 5만1000명을 시작으로 24일 4만9000명, 25일 4만7000명, 26일 4만명, 27일 4만2000명 등이다.

이번 추석 연휴 제주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9600명보다 4.4%(1만600명) 감소한 규모다. 내국인 방문객은 19만1900명으로 지난해 21만2500명보다 9.7%(2만600명) 줄어, 지난달 하순부터 이어진 감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외국인인 3만7100명으로 지난해 2만7100명보다 36.7%(1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해에는

개천절부터 추석과 한글날로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긴 연휴로 여행 수요가 추석 연휴 후반까지 이어졌지만, 올해는 연휴가 짧아 연휴 초반 방문객이 몰리고 후반에는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 제주 노선에 공급되는 항공 좌석은 24만2400석으로 지난해보다 4.4%(1만1100석)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선은 6.9%(1만5400석) 감소한 20만8900석, 국제선은 14.8%(4300석) 증가한 3만3500석이 공급된다. 특별기는 모두 7편이 운항될 예정이다.

선박 공급 좌석은 국내선의 경우 3만9400석으로 지난해보다 10.8%(4700석)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선은 크루즈선 3편이 입항할

예정이고, 지난해보다 50.5%(4700석) 증가한 1만4000석이 공급된다.

연휴 기간 제주 방문객 증가에 맞춰 한국항공공사 제주공항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원활한 손님맞이에 나서고 있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출·도착 항공기 510편이 운항할 예정이며,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로 예상된다.

제주공항은 여객 혼잡을 줄이기 위해 컨베이어벨트 증설을 통한 카운터 추가 운영과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풍수해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체류객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2일 제주국제공항 도착대합실에는 추석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강희만기자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제주시 115개소 무료 개방

제주시가 추석 연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입구와 철성사가 1·2 공영주차장 3개소를 제외하고 115개소를 전면 무료 개방한다.

시는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영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료 개방은 24~27일 시행되며, 대상은 공영 유료주차장 118개소·6755면 가운데 115개소·6496면이다.

시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동문재래시장 노상 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추석 당일인 25일 제외하고 3일간 주차관리원을 배치한다.

백금탁기자

올해 추석 보름달 보기 어려울 듯 연휴기간 구름·비 예보… 기온은 평년과 비슷

제주는 추석인 25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돼 보름달을 보기 쉽지 않겠다.

2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는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과 추석 당일인 25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예측한 추석 당일 제주의 월출 시각은 성산 오후 5시33분, 제주·서귀포 오후 5시

34분, 고산 오후 5시36분이다. 추석 연휴 후반부엔 비가 예상된다. 26일에는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추석 연휴 기간 제주의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기온은 21~23℃, 낮 기온은 26~28℃로 예상된다. 한라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9℃ 안팎의 일교차를 보이겠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달라진 추석 풍속도… 5면 / 추석 연휴 가볼만한 곳… 7면 / 추석 연휴 전통 체험 마당… 8면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연휴로 24~27일자 신문 쉽니다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제주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의 빛나는 도전을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응원합니다.

대회기간

2026. 10. 16.(금)~10. 22.(목)

개회식

2026. 10. 16.(금) 18:00

개회식 장소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Sports Council

JEJU 2026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THE 107TH NATIONAL SPORTS FESTIVAL